

타이완의 다언어현상과 언어정책*

鄭池秀·崔圭鉢**

<목 차>

1. 연구 목적
2. 타이완 다언어의 역사적 배경
3. 타이완의 언어정책
4. 타이완 다언어현상의 특징
5. 맺음말

1. 연구 목적

우리는 타이완을 흔히 중국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거나 중화권의 한 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타이완은 오랜 역사를 통한 이주와 식민을 거쳐 형성된 다문화, 다언어 사회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漢語'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타이완의 다언어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타이완의 언어 사용 현황과 언어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사회로서의 타이완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국내의 타이완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역사 연구에서 식민지 통치 시기 일본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문학 연구에서 일제시기 타이완인의 일본어 창작활동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식민지 교육', '식민지 문학'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시기 역시 식민 시기로 제한되어 있었다. 언어 연구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주저자: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중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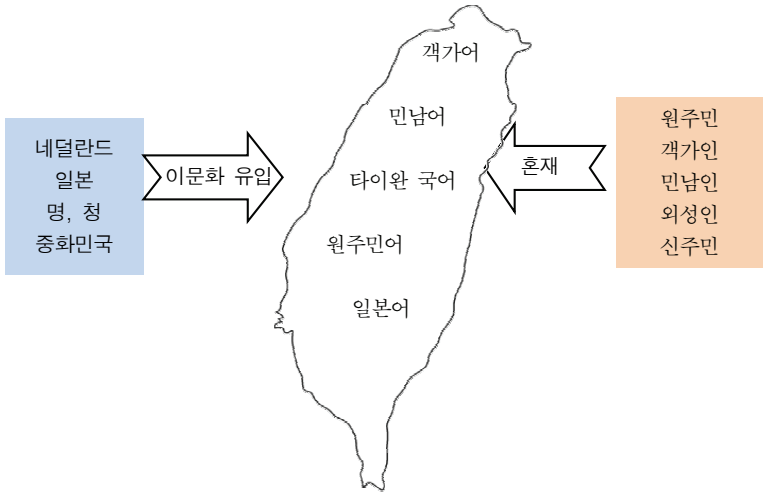
에 있어서는 단지 타이완의 '국어'와 대륙의 '보통화'가 어떻게 이질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나 타이완의 민남어가 타이완 국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연구 등 대부분이 '한어(漢語)' 중심 연구이었다. 전광진(2009)에서 타이완 원주민 족군(族群) 언어의 한글 서사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梁淑萍(2011)에서 타이완 국어와 민남어의 혼용현상을 살펴보았으나 타이완의 다언어 현황을 전반적으로 고찰해 본 연구는 없었다. 曾天富(2011)에서는 타이완의 언어정책과 어문교육을 고찰하고 있지만, 어문교육에 있어서는 '國語'교육만을 살펴보고 있어서 그밖에 여러 언어와 관련된 정책 및 교육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타이완의 언어현상과 언어정책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언어 연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타이완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적 가치를 가진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교육 문제도 중요시되고 있다. 얼마 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엄마(아빠)나라 말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과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이와 같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다언어정책을 실시한 타이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언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본다.

2. 타이완 다언어의 역사적 배경

다언어사회란 그 사회에서 두 개나 그 이상의 언어를 모어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언어사회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다언어사용자인 것은 아니다(이익섭 2000:237-238). Fasold(1984)는 다언어현상(multilingualism)의 발생 요인을 '이민', '식민지화', '연방화', '언어접촉'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¹⁾ 타이완의 다언어현상은 이 중 '이민'과 '식민지화'의 두 가지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타이완의 종족 구성과 언어



현재 타이완은 십여 개의 족군(族群, ethnic group)으로 나뉘는 원주민(原住民), 다양한 한어(漢語) 방언을 구사하는 한인(漢人), '신주민(新住民)'으로

1) 이익섭(2000: 243-247)에서 참조.

불리는 동남아시아 이민자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인은 그 내부에서도 출신 지역과 타이완 도래 시기에 따라 객가인(客家人), 민남인(閩南人), 외성인(外省人) 등으로 또 나뉘는데, 언어 상황은 민족구성보다 더욱 복잡하다.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타이완은 일본 이외에도 네덜란드, 명, 청 등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받았으며, 민족 구성 역시 다원적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한 정체성은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타이완의 관방언어는 한어(漢語)의 북방 방언을 기초로 하는 '國語'이지만, 이밖에도 많은 이들이 모어(母語)로 민남어(閩南語)와 객가어(客家語)를 쓰고 있다. 또한 원주민이 사용하는 십여 개의 원주민 언어가 있는데, 현재 정식 교육과정에도 원주민언어가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일본 식민통치의 역사로 인해 남겨진 일본어의 흔적, 과거 타이완을 무역 거점으로 삼거나 식민지로 삼았던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의 흔적도 타이완 언어 속에 어휘의 형태로 남아 있다.²⁾

타이완의 주요 언어와 인구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1〉 타이완 주요 언어 인구분포³⁾

족군(族群)	인구비율(%)	사용언어	인구비율
총계	-	총계	100.0
민남인	78.6	민남어	65.9
객가인	22.4	객가어	10.4
외성인	13.1	화어(華語)	19.0
원주민	5.3	원주민어	2.0
기타	3.7	기타	2.7

참고: 본 조사는 복수응답 인정 형태로 진행되어 인구비율이 100%를 넘음

2) 엄격히 말해 일본어와 네덜란드어 등 식민지배자들의 언어 흔적은 현재의 타이완에 제한하여 볼 때 구성원의 '모어' 혹은 '공용어'가 아니기에 다언어현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타이완에서 일본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가졌기에 역사적인 다언어현상을 논하는 경우라면 일본어도 포함될 것이다.

3) 2004년 전국 객가 인구 기초자료조사(全國客家人口基礎資料調查). 社會指標統計年報(2005: 134)에서 재인용.

위의 <표-1>은 모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타이완 국어(<표-1>의 화어)가 아닌 민남어가 사용인구 최대 언어로 나타났다.

2.1. 원주민

타이완에 거주하는 이들은 민족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인(漢人), 원주민(原住民)의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인들의 이주 이전에는 원주민이 이 섬에 살고 있었다. 원주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평지원주민(혹은 平埔族)이며, 다른 한 부류는 산지원주민(高山族, 혹은 高砂族)이다.⁴⁾ 2010년 현재 원주민 호수는 160,816호이며, 이 중 평지원주민은 78,370호 241,514명이고, 산지원주민은 82,446호 271,187명이다.⁵⁾

타이완 원주민 족군(族群)에서 사용되는 원주민 언어가 있다. 오스트로네시안(Austronesian) 어족(語族)에 속하는 이들 원주민 언어 내부에는 아타얄어(Atayal), 파이완어(Paiwan), 쩌우어(Tsou) 세 개의 어군(語群)이 존재한다. 원주민 족군 간에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미스어(Amis, 阿美語), 야미어(Yami, 雅美語), 푸유마어(Puyuma, 卑南語), 쩌우어(Tsou, 鄒語), 파이완어(Paiwan, 排灣語), 아타얄어(Atayal, 泰雅語), 부논어(Bunun, 布農語), 루카이어(Rukai, 魯凱語), 사오어(Thao, 邵語), 사이시앗어(Saisiyat, 賽夏語), 세딕어(Sediq, 賽德克語), 트루쿠어(Truku, 太魯閣語), 카바란어(Kavalan, 噶瑪蘭語) 등 20여 개의 언어가 있으며, 각 종족 내의 언어도 지역 별로 다른 방언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아메이족(阿美族)이 사용하는 아미스어 내에도 여섯 개의 방언이 존재한다(臺灣教育部 2005 참조).

4) 원주민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淸朝의 '理番'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손준식 2010:161 참조).

5) 內政統計年報(<http://sowf.moi.gov.tw/stat/year/list.htm>)

<그림 2> 타이완 원주민족 분포도



(출처: 行政院 原住民族委員會 홈페이지)

2.2. 집단이주

한인들은 중국 본토로부터 이주해 온 이들로, 1630년 네덜란드인의 타이완 이주 장려를 통해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 이민자들은 자신의 출신지역과 사용 언어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취락을 이루고 집단 거주하였다고 한다(손준식 2010: 159-160). 이후 청조(淸朝) 시기 정성공(鄭成功)이 군대를 이끌고 타이완으로 와 네덜란드인을 축출하던 시기에 또 한 차례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이주 시기에 들어온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현재 중국의 방언 분류 상의 민남어(閩南語), 객가어(客家語)에 해당하며, 여기에 중화민국 패주 시 본토에서 들어온 이들(外省人)이 사용하던 표준중국어(만다린, 北京語)까지 더해져 한인(漢人)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3개의 한(漢) 방언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북경어를 근간으로 하는 ‘국어’가 표준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언어 사용자들의

발음이나 어휘 등을 살펴보면 타이완의 국어는 중국 본토의 표준어인 보통화(普通話)와는 크게 다른 면모를 보인다. 타이완 국어의 모습이 이처럼 이질화된 데에는 방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3. 식민

1500년대 중반, 포르투갈 선단이 타이완 근해를 지나가던 중 타이완을 보고 'Ilha Formosa(아름다운 섬)'라고 부르면서 타이완은 'Formosa'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伊藤潔 참조). 그 당시 타이완에 살던 원주민은 중국어가 아닌 오스트로네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었다.

이후 1624년부터 1662년까지 38년에 걸쳐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통해 타이완을 장악하고 식민 지배를 하였다. 명 말 정성공(鄭成功)의 군대가 이곳에 와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면서부터 이곳에 본격적으로 중화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나라의 통치를 받아 오던 타이완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에 할양되면서 또 다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타이완은 독립하게 된다(伊藤潔 참조).

식민과 관련해서 일본어의 영향과 나머지 다른 언어(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의 영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일본 통치 기간에는 강제적인 언어 통일정책을 펼쳤기에 현재 일부 노년층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다수의 일본어 어휘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나머지 언어들은 어휘의 형태로만 흔적이 남아 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 기간에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원주민 언어 연구,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원주민 언어를 병음화하고 교육하기도 하였다(李雄揮 2004 참조).

일본의 식민지 언어정책은 이와 상반된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타이완에 '표준어'의 개념이 없었으나 일본이 동화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어를 '國語'로 삼을 것을 강요하면서 일본어가 관방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원주민이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인은 원주민을 강제로 동화시켰고, 80%의 원주민이 일본어를 구사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원주민 언어 속에도 일본어가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⁶⁾

일본의 가혹한 식민 지배 역사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인들은 현재도 ‘歐吉桑(おじさん)’, ‘歐巴桑(おばさん)’, ‘便當(べんとう)’이라는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딴 어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거나 ‘國語’속에 중국어 어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放送’, ‘觀光客’ 등을 사용하는 등 타이완에서는 일본어 어휘가 여전히 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을 해왔던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독립 이후 자신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외부 세력에 의해 ‘중국어(中國化)’를 강요당한 타이완의 특수한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박병석 2010, 최말순 2011, 曾天富 2011 참조). 1945년 광복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에서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일본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는 타이완인들에게 우리와는 또 다른 기억으로 추억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광복 직후 일본어 금지가 오히려 타이완의 국제화를 더디게 만드는 장애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李雄揮 2004).

2.4. 결혼이민

역사적으로 볼 때 1945년 이전의 타이완이 식민통치나 대규모 이주정책과 같은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사회였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또 다른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6) 타이완 國立政治大學 민족학과 부교수 王雅萍 신문 인터뷰. 인터뷰 출처: 百年教育系列 4: 百年語言變化 日治影響深遠 <http://www.lihpao.com/?action-viewnews-itemid-103457>

타이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거리를 찾아 온 이주노동자 및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어 있다. 타이완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의 국제결혼은 크게 대륙 출신자와의 결혼과 대륙 이외 기타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자와의 결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타이완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를 각각 '신주민(新住民)', '신주민자녀(新住民子女)'로 부르고 있는데, 최근 타이완에서는 이들 신주민의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김숙이 2011 참조).

〈표-2〉 외국인 배우자 수⁷⁾

항목	국적	수(명)
외국인 배우자	베트남	86,388
	인도네시아	27,290
	태국	8,260
	필리핀	7,207
	캄보디아	4,294
	일본	3,683
	한국	1,081
	기타 국가	12,874
소계		151,077
대륙(홍콩·마카오 포함) 배우자	대륙지역	296,746
	홍콩·마카오 지역	12,456
소계		309,202
합계		460,279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의 통계자료⁸⁾를 보면 1987년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외국인배우자와 대륙배우자(홍콩·마카오 포함)는 모두 460,279명이며, 타이완 총인구(23,230,506명, 2012년 1월 현재)⁹⁾의 약 1.98%에 달한다. 그 중 외국인배우자는 151,077명이며, 대륙과 홍콩·마카오 지역 배우자가

7) 자료출처: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 <http://www.immigration.gov.tw>

8) 자료출처: <http://www.immigration.gov.tw/public/Attachment/22299281978.xls>

9) 자료출처: 內政統計月報(<http://sowf.moi.gov.tw/stat/month/m1-01.xls>)

309,202명이다. 외국인배우자의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8.77%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가 5.93%, 태국이 1.79%를 차지한다.

2011년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자 중 결혼으로 인한 귀화자는 총 5,562명이며, 이중 남성이 86명, 여성이 5,576명으로 여성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여성귀화자 중 국적별로는 베트남 여성이 4,38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여성(705명), 세 번째는 필리핀(227명)이었다.¹⁰⁾

이처럼 국제결혼은 대개 외국인 여성과 타이완 남성 간에 이루어지며, 결혼 이민자는 동남아시아지역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성배우자에 대한 '동남아신부(東南亞新娘)', '외국인신부(外籍新娘)'이라는 명칭이나 대륙 출신 여성배우자에 대한 '대륙신부(大陸新娘)'이라는 명칭은 이들 여성을 폄훼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신주민(新住民)'이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부르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신주민자녀(新住民子女)', '신대만자녀(新臺灣之子)'라고 부르고 있다.

3. 타이완의 언어정책

아래에서는 먼저 시기별로 타이완 언어정책의 변화 추이를 짚어본 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언어정책을 살펴보겠다.

3.1. 언어정책 변화

陳美如(1997)¹¹⁾, 李雄揮(2004)에 따르면 1945년 광복 이후 타이완의 언

10) 內政統計年報(<http://sowf.moi.gov.tw/stat/year/list.htm>)

어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3〉 언어정책에 따른 시기구분

	陳美如(1997)	李雄揮(2004)
제1기: 1945-1970	除去日本化恢復中國化期	華語社會建立期
제2기: 1970-1987	貫徹國語推行凝聚國家意識期	方言全面壓抑期
제3기: 1987-현재	邁向多語言多文化期	語言人權開放期

1945년 광복 이후 국민당 정부는 표준중국어인 ‘국어’를 중심으로 한 강제적 언어통합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계엄 해제가 있었던 1987년 전까지 이어졌다. 1987년 이후 타이완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타이완어(臺語, 국어 이외에 타이완에서 사용되는 방언, 본성인의 모어를 가리키며, 주로 민남어를 지칭) 사용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1987년 이후에는 정권 교체 및 사회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언어정책이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 분수령이 된 것은 2000년 선거를 통한 민진당(民進黨)의 집권이다. 또한 최근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나온 것도 바로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曾天富(2011)에서도 다언어정책이 시작된 2000년대 이후를 따로 떼어 살펴보았다.¹²⁾ 따라서 본고에서는 타이완의 과거 언어정책을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 제1기: 1945-1970 일본어 청산과 국어 보급
- 제2기: 1970-1987 강제적 ‘中國化’와 방언탄압
- 제3기: 1987-2000 향토언어 회복
- 제4기: 2000-현재 다문화언어정책 수립 및 확대

11) 陳淑華(2009) 참고.

12) 曾天富(2011)에서는 국민당의 패주와 계엄법 실시가 있었던 1949년까지를 제1기로 보았다.

3. 1. 1. 제1기: 일본어 청산과 국어보급

이 시기에는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통일된 언어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였다. 따라서 먼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어를 보급하는데 주력하였다. 국민당정부에서는 타이완성(臺灣省) 내의 교과서와 신문에 일본어 사용을 금지하였고, 학교와 관공서에서의 국어사용과 국어교사 양성을 위해 힘썼다. 이 시기에는 타이완 내에서도 자발적인 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되었다고 한다.

1945년 천이(陳儀)가 타이완성 행정장관으로 부임하였을 당시 그는 “먼저 국어 및 국문 교육에 착수하여 타이완이 조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며, 4년 내에 대략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大公報 1945년 9월 2일, 李雄揮 2004에서 재인용). 이전까지는 타이완이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이제 막 벗어난 시기였기에,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의 ‘중국의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중국화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언어 통일정책이었다.

이듬해인 1946년에는 長官公署에서는 ‘臺灣省國語推行委員會組織規程’을 공포하고, ‘臺灣省國語推行委員會’를 성립시켰고, 6가지 조항의 ‘臺灣省國語運動綱領’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李西勤, p. 184, 李雄揮 2004에서 재인용).

1. 타이완어 복원을 실시하고, 방언과 비교하며 국어를 배운다.
(實施臺語復原, 從方言比較學習國語。)
2. 한자독음을 중시하고, 공자의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표준음을 익히도록 한다.
(注重國字讀音, 由孔子白引渡到國音。)
3. 일본식 문법을 구축하고, 표준음으로 문자를 직접 읽어서 문장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刷清日語句法, 以國音直接讀文, 達成文章還原。)
4. 어휘 대조 연구를 통해 어문내용을 충실히 하고, 새로운 국어를 만든다.
(研究詞類對照, 充實語文內容, 建設新生國語。)
5. 주음부호를 사용하여 민족 의지를 소통케 하고, 중화문화를 관철시킨다.
(利用注音符號, 溝通民族意志, 融貫中華文化。)

6.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육 효과를 높인다.
(鼓勵學習心理, 增進教學效能。)

당시까지 타이완에서는 북경어(北京語)가 관방어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민남어와 객가어를 구사하는 방언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은 타이완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삼기를 강요하고 일본어를 가르쳐왔기에 당시 많은 이들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고 한다. 당시 타이완의 지식층은 일제 강점기 학교 교육 보급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많은 현지 지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고위층은 타이완 본성인(本省人)이 아닌 '외성인(外省人)'으로 채워졌다고 한다(李雄揮 2004).

이후 1947년에는 각급 학교에서 일본어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수업은 국어를 위주로 하며, 현지 방언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6년에는 '국어 말하기 운동(說國語運動)'을 전면 시행하고, 학교에서 타이완어(臺語)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제1기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어를 보급한다는 미명 하에 점차적으로 방언을 탄압하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3.1.2. 제2기: 국어 강제통합과 방언탄압

1970년대에는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중국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보수화가 한층 더해졌다.

1970년 3월, 교육부는 '국어운동 추진 강화방법 실시요점(加強推行國語運動辦法實施要點)'을 반포(李雄揮 2004 참고)하면서 일본어 청산에서 더 나아가 방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속에서 학교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학생들에게 벌금 부과, 체벌, 구타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1976년 1월에는 '방송법(廣播電視法)'이 공포,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문제

가 되었던 것은 제20조라고 한다(李雄揮 2004 참조). 제20조에서는 “방송국의 국내 방송언어는 국어를 위주로 하고, 방언은 매년 감소시킨다. 그 비율은 신문국(新聞局)이 실제 필요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을 거치면서 국어의 우월적 지위는 한층 더 격상되었고, 방언의 지위는 격하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1985년에는 ‘어문법(語文法)’초안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회의, 공무, 공개강연, 공공장소 담화(공공장소란 3인 혹은 그 이상이 모인 장소를 말함), 각급학교 교육 실시, 대중전파(법령에서 규정한 것 제외) 등의 상황에서 표준 국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초안은 국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제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3.1.3. 제3기: 향토언어 회복

1993년 ‘모어교육(母語教育)’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식 교육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택과목에 민남어와 객가어가 포함되었다.

또한 ‘한어(漢語)’를 중심으로 하던 언어정책은 1990년대 들어 크게 바뀌었는데, 이 시기부터 원주민 언어의 보존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타이완 정부는 1993년 처음으로 교육과정표준에 민족언어와 문화를 포함하는 ‘향토교육(鄉土教育)’ 목표를 명시하고 교과 내용에 모어(母語) 및 방언 교육을 포함시켰다. 언어교육에 있어서는 1998년 언어영역 중 본국어문 속에 본국어문인 국어 이외에도 향토어문을 포함시켜 필수과정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 향토어문에는 민남어, 객가어와 원주민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신교육과정은 본토언어를 필수과정으로 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민남어, 객가어와 객가어와 원주민어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하여 배우도록 하였다(張亦正 2006: 31-32, 김정호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책 실시는 1998년 원주민교육법 제정과 맞물린 것인데, 이 법은 “원주민의 요구에 따라 원주민족의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원주민의 민족교육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특

별 제정한 것이다.”(原住民族教育法 제1조)

3.1.4. 제4기: 다문화언어정책 수립 및 확대

2000년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벤(陳水扁)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타이완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타이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정책적 변화는 두 가지 방면에서 엿볼 수 있는데, 하나는 2000년을 기하여 언어통일정책을 위해 만들어졌던 국어추행위원회의 역할이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2001년부터 시행된 ‘九年一貫 교육과정’ 속에 향토언어(鄉土語言) 교육이 포함된 것이다.

먼저 ‘國語推行委員會’의 역할은 국어보급 중심에서 언어연구,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2000년 이전 ‘國語推行委員會’는 국어 관련 연구 업무를 위주로 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국어 이외에도 타이완 민남어, 타이완 객가어와 타이완 원주민족 언어에 대한 연구와 교육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문 명칭은 이미 ‘Mandarin Promotion Council’에서 ‘National Languages Committee’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 향토문화 교육과정의 공포, 실시를 살펴보자. ‘教育部推動國民中小學鄉土教育實施要點(교육부 초·중학교 향토교육 추진 실시 요점)’에서 명시한 향토교육의 여섯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보존, 전승, 창신 관념을 배양한다.
- (2) 향토활동에 대한 관심을 배양하고, 가정과 교장, 국가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킨다.
- (3) 향토문제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고, 주동적인 관찰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양성한다.
- (4) 향토교육을 실천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 화합을 촉진시킨다.
- (5) 향토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본능력을 배양하여 향토언어를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한다.
- (6) 향토문학작품 감상능력을 제고시키며, 향토문화의 정수를 체득한다.

이 중 다섯 째 목표가 바로 향토언어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향토교육에 이와 같이 향토언어교육이 포함되고, 2001년부터 초등학교 필수선택과목으로 채택되고는 있으나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실시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은 교육시간의 부족, 교육과정의 구체성 부족, 교재 부족 등의 문제이다. 먼저 향토언어의 교육시간은 1주일에 최소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향토언어 수업시간을 늘이면 다른 어문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1주일 1시간에 그쳐서 한 언어를 배우기에는 수업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향토언어 교육은 지자체나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교재 선택이나 편찬, 교육방식 등이 자유로운데, 이는 달리 말해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의 교육과정은 언어마다 목표가 제각각인데다가 교육과정의 구체성도 부족하다. 또한 민남어나 객가어는 방언이어서 발음 서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자 표기도 교과서마다 다르다. 원주민어 역시 문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표음방법에 규범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國語推行委員會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상태이다.

3.5. 현 정부의 언어정책

3.5.1. 정치적, 사회적 배경

타이완의 현 집권당인 국민당이 과거 실시한 강압적 언어통일정책은 본성인의 반발을 사왔다. 그러나 국민당의 이러한 정책도 본성인들에 의해 지속된 '본토화운동(本土化運動)'의 흐름을 막지 못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민진당(民進黨) 집권 시기를 거치면서 '본토화'는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었고, '본토화'의 개념이 '타이완 정체성'과 동일시되기에 이르자 국민당 역시

더 이상 ‘중국어’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를 꺾고 집권에 성공한 마잉주(馬英九)는 2012년에도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2012년 선거 공약을 통해 ‘본토화’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당은 ‘黃金十年’을 약속하면서 네 가지 확보 사항과 여덟 가지 주요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중 네 가지 확보사항은 다음과 같다.¹³⁾

네 가지 확보 사항

- 중화민국 주권의 독립과 완전성 확보
- 타이완의 안전과 번영 확보
- 족군 화합과 양안 평화 확보
- 환경 보전과 공정사회 확보

이 중 족군화합과 공정사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유력한 야당인 민진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이자 국민당의 반대세력인 본성인들을 위한 공약이 바로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당의 공약에서는 ‘중화민국’이 ‘타이완’에 우선하지만, 제1야당인 민진당 총통 후보 진영의 공약에서는 반대로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타이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10년 정강(政綱) 목표는 바로 ‘強化臺灣, 凝聚臺灣(타이완 강화, 타이완 단결)’이다. 비록 국민당이 총통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타이완 주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총통후보 득표율이 45.63%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토화’ 주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목소리임에 틀림없다. 2008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국민당 정부의 언어정책도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다.

현 정부의 언어정책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 다언어정책

www.kci.go.kr

13) 총통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관한 정보는 中時電子報에서 참고.
(<http://vote.chinatimes.com/2012/people/president.aspx?id=1>)

둘째, 원주민과 신주민자녀 우선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
첫 번째는 바로 ‘족군화합’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징이며, 두 번째는 ‘공정사
회’와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이다.

본토화운동에서 매우 중시된 것 중 하나는 바로 본토언어, 즉 모어회복운동
이다. 이는 언어가 바로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眞田信治 2006/2008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성인들은 자신들의 정체
성과 인권을 되찾기 위해 모어를 사용하고 배울 권리, 즉 언어권¹⁴⁾을 주장하
는 것이다.

3.5.2. 다언어 정책

타이완 현 정부는 족군화합을 위해 ‘다문화’를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
념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향토언어’를 ‘본토언어’로 정명

2008년 공포된 교육부의 수정판 ‘國民小學及國民中學教科圖書審定辦法(초
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 심의 검정방법)’에서는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를
가리키던 ‘향토언어’에서 ‘본토언어’로 바로잡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토언어’가 이들 언어를 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 타이완 모어의 날(臺灣母語日) 행사

매년 2월21일은 ‘세계 모어(母語)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로, 이 날에 맞추어 타이완에서는 본토언어 장려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
다. 2008년부터 세계모어의 날을 전후로 하여 본토언어 보급과 확대에 공헌을
한 인물들을 선발하여 ‘表揚推展本土語言傑出貢獻獎(본토언어 공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타이완 모어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14) 언어권이란 모어로 스스로를 표현할 권리와 모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眞田信治
2006/2008: 19에서 인용).

있다.

다. 閩南語 및 客家語 상용어휘 사전 인터넷판 개발

본토언어를 보급하고 교육을 돕기 위해 2008년말 《臺灣閩南語常用詞辭典》(<http://twblg.dict.edu.tw>)과 《臺灣客家語常用詞辭典》(<http://hakka.dict.edu.tw>)의 인터넷판을 각각 열었다. 이 사전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상용어휘를 수록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민남어, 객가어 차방언(次方言) 및 여러 발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석과 예문을 싣고 있어서 본토언어 교육에 유용한 공구서로 활용되고 있다.

라. 민남어와 객가어 추천한자(推薦用字) 공포:

본토언어를 보급하고 모어학습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민남어와 객가어 교재마다 한자를 서로 달리 사용하고 있어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언어학계 및 교육계 전문가들에게 객가어와 민남어 추천한자를 연구,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2009년과 2011년 객가어 추천한자 564단어를 공포하였으며,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민남어 700단어를 공포하였다. 이 추천한자는 臺灣 國立編譯館(현 國家教育研究院教科書發展中心)과 각 직할시정부, 縣市정부 및 민간의 본토언어 교재 출판사 등 관련업무 집행에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¹⁵⁾

마. 민남어능력 인증시험의 실시

타이완 교육부는 2010년 9월 25일 제1회 민남어 능력 인증시험(閩南語言能力認證考試)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17개 지역 20개 고사장에서 동시 실시되었다. 접수자는 4,118명이며, 응시인원은 3,215명이었다. 급수별 합격률은 기초가 1.58%, 초급이 12.65%, 중급이 20.06%, 중고급이 19.82%, 전문가급이 3.08%였다.¹⁶⁾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진행되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시험이 진행되며, 총 5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기초, 초급, 중급,

15) 타이완 교육부(<http://www.edu.tw/2011gpr.htm>)

16) 타이완 교육부(<http://www.edu.tw/2011gpr.htm>)

중고급, 고급, 전문가급 여섯 등급으로 나뉜다. 각 등급 표준점수에 도달하는 자는 교육부가 급수별 증서를 수여한다.

바. 원주민언어 교재 편찬

또 한 가지는 원주민언어 교재의 지속적 편찬이다. 2001년부터 본토언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표음방법이 정해지지 않고 교재가 없어 시행에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원주민언어의 교육을 수월히 하기 위해 교육부와 원주민위원회(原住民族委員會)에서는 政治大學 原住民族語言教育文化推展中心에 원주민언어 교재편찬을 위탁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과정 동안 사용할 수 있는 9단계 교재를 펴냈다. 또한 원주민언어 교육 확대를 위해 政治大學 原住民族研究中心에 위탁하여 원주민어 기초교재(原住民族語基礎教材)를 펴냈고, 2011년 12월 정식으로 대외 발표행사를 가졌다. 이 책은 취학 전 아동 및 비원주민 학습자를 위한 초급 원주민언어 교재로, 2012년 9월 신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3.5.2. 신주민 언어 지원정책

타이완 정부에서는 신주민과 그 자녀들이 타이완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타이완 정부에서는 신주민과 신주민자녀를 위한 다문화 언어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이처럼 국제결혼을 통해 타이완 사회에 진입한 신주민(新住民)을 위해 언어교육, 이중언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김숙이 2011). 예를 들어 타이베이현(臺北縣)에서는 2008년 '新住民文教輔導科'를 신설하고, 신주민 지원과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신주민과 그 자녀들의 다문화학습 교재를 편찬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타이베이현에서 편찬한 교재에는 '國民小學多元文化教材東南亞篇-我們都是一家人', '7語多元文化繪本東南亞篇', '7語多元文化繪本第2輯' 등이 있으며, 그 중 '多元文化繪本'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버마어 등 7개 언어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성

인인 신주민의 언어적응을 돕기 위한 '新住民基本學習教材' 및 신주민 자녀의 교양을 위한 '8語幸福魔法書-新住民親職教育手冊'(중국어와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버마어, 캄보디아어 8개 국어 대역어판)을 펴내기도 하였다(臺北縣政府 教育局 미디어 참고자료).

앞서 본 것처럼 신주민과 그들의 자녀는 이미 원주민 인구의 비율을 넘어서서 신주민은 타이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문화 언어교육은 주류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극대화와 소유 언어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성기철 2008: 14). 하지만 타이완의 신주민 언어정책을 보면 주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마잉주 총통과 신주민들이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천평황(陳鳳凰)씨는 신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모어 방송 프로그램을 꼽았는데, 모어 뉴스방송, 모어로 진행되는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모어 오락 프로그램 등이 생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¹⁷⁾ 이와 같은 신주민의 바람과 같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중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타이완 다언어현상의 특징

이상과 같은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통해 형성된 타이완의 다언어현상은 양층언어현상(diglossia)을 드러낸다. 양층언어현상이란 한 사회 혹은 한 언어 공동체 안에 그 담당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두 종류의 변종(variety)이 그 공동체 전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이익섭 2000: 255). 양층언어사회에서는 상위어(high dialect)와 하위어(low dialect)가 나

17) 聯合晚報 2012년 3월 19일자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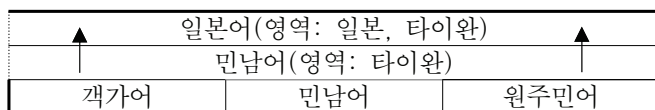
(<http://udn.com/NEWS/NATIONAL/NAT1/6971267.shtml>)

는데, 상위어는 대개 공식적인 영역에서 쓰이며, 하위어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사용된다(Ferguson 1959, 이익섭 2000에서 참조).

타이완 사회에서 '국어'는 상위언어(high language)의 역할을 하며, 모어는 하위언어(low language)의 역할을 한다. 또한 모어 가운데에서도 민남어는 상대적으로 우세언어로, 전체 언어 중 중간층위언어(mid language)의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역사 시기별로 타이완의 여러 언어들은 층위 변화를 겪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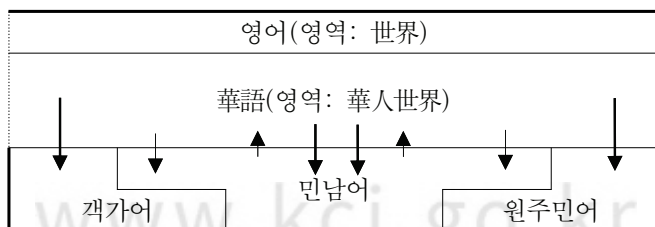
洪惟仁(2000)은 타이완 사회를 양층언어사회로 간주하고, 타이완에서 여러 언어의 층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3> 50년대 타이완 언어층위 변화(洪惟仁 2000)



그림에서 맨 위는 상위언어이며 아래로 갈수록 하위언어가 된다. 화살표는 확장 방향을 나타낸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일본어의 지위는 하향축소를 겪게 되며, 반대로 민남어의 지위는 상향확장을 겪게 되는 형세가 되었다. 위의 그림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그림-4> 현재의 타이완 언어층위(洪惟仁 2000)



그러나 이후 국민당 정부의 강력한 국어보급과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언어 층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객가어와 원주민어는 국어, 즉 화어의 확장으로 인해 지위가 위축되고 하향축소되었고, 민남어도 비록 국어의 강제로 인해 하향축소되기는 했으나 객가어, 원주민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위를 차지한다. 洪惟仁(2000)의 분석에는 영어가 최상위언어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복 이후 일본어의 지위를 대신한 것은 국어(華語)이며, 이로 인해 본토언어인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의 지위는 하향축소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민남어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표-1> 참조) 하위언어 중에서도 상대적 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洪惟仁은 민남어를 중위언어(mid language)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언어층위 변화는 각 시기별 언어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언어의 자아정체성 문제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타이완 광복 이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에서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일본의 흔적을 지우고자 함이며, 국민당 정부가 방언을 금지하고 국어 사용을 강제하였던 것은 또한 ‘자신들이 바로 중국’이라는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함이었다(Hsiau 1997, 陳依玲 2008: 228에서 재인용).

그 반대 관점에서 볼 때 본토화운동은 탈중국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탈식민주의(혹은 후식민주의, post-colonialism)’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박병석 2010 참조). 계엄 해제 이후부터 본격화 된 본토화운동은 바로 중국국민당의 재식민(再植民)에서 벗어나 탈중국화, 본토화의 길로 나아가 타이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어’의 그늘에 가려져 ‘향토언어’로 불리던 그들의 모어는 정명(正名)을 통해 ‘본토언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상위언어와 하위언어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위언어와 하위언어의 구분은 이 두 언어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위언어를 더 우위의 언어이며, 세련되고 논리적 언어라 여기고, 하위어는 저급한 언어라 여겨서, 또 다른 양층언어사회

인 아랍과 아이티에서는 평소 일상 대화에서 하위언어를 쓰면서도 자신이 하위언어를 쓰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고 한다(이익섭 2000:256에서 인용).

謝堂樹(1994)는 타이완 본토언어에 대한 사용실태와 의식을 조사하였는데, 그의 조사에 따르면 ‘국어’의 모든 영역과 기능은 다른 언어를 크게 압도하며, 국어는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언어일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신세대로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민남어의 경우는 비민남인 피면담자 간의 의사소통 시에도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는데, 이것은 민남인의 인구 비율이 타이완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며, 다수의 객가인, 민남인, 원주민인 피면담자가 비록 그들이 가정에서 의사소통 시에는 그들의 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는 모어의 사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타이완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 간에는 사용 영역에 따라 몇 개의 층위가 나누어지는데, 국어는 그 중 가장 지배적이며, 최상위언어의 지위를 가진다. 그 다음은 민남어로, 민남어는 즉군간 접촉 시에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민남어를 제2관방어의 지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⁸⁾ 또한 謝堂樹의 조사에서는 국어와 모어 간의 언어 전환에 있어서 성별, 세대별 차이가 뚜렷함을 발견하였는데, 젊은이들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이들이 국어를 말하고, 모어를 적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교육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여서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에 비해 국어 사용량이 비교적

18) 타이완 정체성을 찾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2002년 대련당(臺聯黨)에서는 민남어를 제2관방어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曾天富 2011: 278), 또 한편에서는 이를 격렬히 비난하기도 하였다. 반대파의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어의 지위가 격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며, 하나는 또 다른 즉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施正鋒 2003 陳依玲 2008: 241).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48%가 이에 찬성의견을, 37%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즉군별로는 민남인의 54%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하였으며, 객가인의 31%가 찬성, 54%가 반대하였고, 위성인의 31%가 찬성하고 58%가 반대하였다고 한다.

(<http://www.tvbs.com.tw/code/tvbsnews/poll/2003-03/20020318/020318.asp>, 施正鋒, 2003에서 재인용)

적으며, 모어 사용량이 비교적 높았다고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피면담자들이 국어가 곧 지위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모어 역시 죽군을 나타내는 표지이면서 국어와 마찬가지로 우아하고, 아름답고, 의사 표현에 적합한 언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본토언어의 몰락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면담자들은 본토언어가 공식적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들은 또한 본토언어가 관방언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고 한다.¹⁹⁾

이상과 같이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국민당의 계엄 통치 시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된 공용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언어권(language right)을 유린당하였다. 계엄 해제 이후 탈중국어 노력과 본토화 주장을 거쳐 문화 다양성, 언어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강제된 공용어인 국어와 다수의 모어인 민남어 이외에도 소수의 언어인 객가어, 원주민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림-4>와 같은 현재 타이완의 언어 층위는 향후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본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타이완의 다언어현상 및 관련 언어정책을 고찰해보았다. 한 국가와 사회의 언어정책은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각 언어 사용집단의 언어권 및 정체성을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이완 사회가 다양한 죽군 언어를 보전하고 교육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여러 문헌자료와 정책자료 검토를 통해 살펴본 타이완의 언어정책은 과거 국어 위주

19) 이상 謝堂樹(1994)의 논의는 陳依玲(2008)에서 재인용.

의 규범화 정책에서 벗어나 다원화 정책으로 향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을 통해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 등 본토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2%가 넘는 신주민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정책은 여전히 주류문화 적응을 목표로 한 소극적 방식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앞서 본토언어교육정책이 변모한 것처럼 신주민 언어정책 역시 규범화에서 다원화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국내자료

- 강송(1993), <『臺灣國語』與大陸『普通話』的詞彙差異-韓國現行漢語教材詞彙分析>, 《중국어문논집》 제8집.
- 강혜근(1994), <普通話와 國語의 發音差異 研究-字音을 中心으로>, 《중국어문학》 제23집.
- 김미란(2011), <타이완의 젠더화된 新·舊이민과 양안(兩岸)결혼>, 《중국어문학논집》 제68호.
- 김량수(2002), <日帝時代 韓國과 臺灣 작가의 二重言語 文學>, 《중국어문논총》 제23집.
- 김정호(2010), <타이완의 다문화교육과 사회과교육 초등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2), pp.155-169.
- 梁淑萍(2011), <探討當今臺灣的語言現象>, 《중국어문학지》 제36집.
- 박병석(2010),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대만의 탈중국화운동—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 《동양정치사상사》 9: 1.
- 真田信治(2006), 《社会言語学の展望》, くろお出版; 강석우, 김미정, 이길용 역(2008), 《사회언어학의 전망》, 제이앤씨.
- 손준식(2000), <淸朝의 臺灣 認識과 政策>, 《근대중국연구》 제1집.
- 손준식(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제18호.
- 손준식(2007), <식민지 조선의 대만 인식—『조선일보』(1920-1940) 記事를 중심으로>

- 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4집.
- 손준식(2010), <일제 하 '대만의식'의 형성 배경과 그 성격>, 《중앙사론》 31집.
- 성기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2호.
- 이해성(1997), <계급 간 언어유형의 차이와 문화강제 그리고 학교부적응>, 《교육사회학연구》, 19: 4.
- 이해우(2000), <臺灣語를 통해 본 臺灣 國語 發音의 特徵>, 《중국어문논총》 제19집.
- 이해우(2001), <臺灣語 및 標準中國語와의 비교를 통해 본 臺灣國語 文法의 特徵>, 《중국어문학논집》 제17호.
- 장동천(2006), <대만의 '향토문학' 서사와 '신진영' 운동본토주의 문화의식의 형성과 확산>, 《중국어문논총》 제31집.
- 전광진(2009),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중어중문학》 제45집.
- 한국타이완 비교문화연구회(2010), 《전쟁이라는 문턱》, 서울: 그린비.
- 한용수(2003), <중국 근대언어정책과 정치배경>, 《중국인문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해외자료

- 李雄揮(2004), <臺灣歷史各時期語言政策之分析比較>, 語言人權與語言復振學術研討會 발표논문, 2004. 12. 18. 臺東大學語教系.
- 駱嘉鵬(2005), <臺灣閩南語受到臺灣國語影響的音變趨向>, 第九屆閩方言國際研討會.
- 徐大明, 陶紅印, 謝天蔚(1997), 《當代社會言語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施正鋒(2003), <語言與多元文化政策>, 2003全球客家文化會議論文, 臺灣, 高雄圓山大飯店, 2003년 11월 13-14.
- 國立編譯館 主編(2006), 《自由化 民主化—臺灣通往民主憲政的道路》, 日創社文化事業有限公司.
- 張學謙(2009), <多元承認化解臺灣語言衝突>, 《海翁臺語文教學季刊》第三期 頁16-25.
- 陳原(1983), 《社會言語學》, 學林文庫.
- 陳學怡(2004), 《語言政策與幼兒教育-新加坡香港及臺灣之分析比較》, 國立臺中師範大學幼兒教育研究所 석사학위논문.
- 臺灣教育部(2005), 《原住民族語言書寫系統》.
- 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 홈페이지(<http://www.apc.gov.tw/>).

- 洪惟仁(2000), <臺灣的語言政策何去何從>, 各國語言政策研討會, 2000年 淡江大學。
- 黃美金(2007), <臺灣原住民族語言教材之回顧與展望>, 《原住民族語言發展論叢—理論與實務》, 213-224, 國立臺東大學華語文學系編輯, 臺北: 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暨國立臺東大學華語文學系。
- 黃秀仍·曾春潮(2006), <明鄭清領時期臺灣閩南語的形成—兼論在臺灣閩南語史分期的定位>, 《遠東學報》, 第二十二卷 第二期。
- 行政院客委會(2004), 《2004年全國客家人口基礎資料調查研究》。
- 行政院主計處(2005), 《社會指標統計年報》。
- 臺灣教育部(2008), 《臺灣閩南語羅馬字拼音方案使用手冊》。
- 伊藤潔(Ito Kiyoshi), 陳水螺 譯(2004), 《臺灣歷史》, 臺北: 前衛出版社。

관련법령 및 정책

原住民教育法

1976 廣播電視法

1985 語文法草案

2000 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暫行綱要

2003 語言平等法草案

2007 國家語言發展法草案

教育部中程施政計劃(2010-2013년도)

教育部中程施政計劃草案(2003-2005년도)

教育部中程施政計劃草案(2005-2008년도)

教育部中程施政計劃草案(2009-2011년도)

< 中文提要 >

臺灣是一個由多數族群構成的多元文化社會。目前在臺灣使用的語言除國語(華語)外還有閩南語、客家語等漢語方言以及十多種南島語言, 大部分臺灣人使用雙語。本文先考察臺灣多元文化的歷史背景和多語言社會的形成過程, 以期了解臺灣多元文化的特殊性, 并探討歷代政府語言政策的主要內容和變化方向, 最後分析了現任政府語言政策的特性。國民黨政府來臺後實行了一連串的“中國化”政策, 推行獨尊國語政策, 壓制方言和原住民語言。但隨著“本土化運

動的推展, 語言政策也隨之變化, 逐漸重視本土語言。特別是在民進黨執政後, 這種變化具體反映在教育課程上, 中小學教育課程中還包括本土語言教育。

關鍵詞: 多語言, 多元文化, 臺灣, 語言政策, 國語, 本土語言, 閩南語, 客家語, 原住民語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3. 31.	2012. 5. 3.	2012. 5. 17.	2012. 5. 21.	2012. 5. 31.